합창단으로 어린이 포교 활력 'UP'

7월 17일 관음사 '단이슬 합창단' 연습 현장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는 어린이 포교를 위해 '단이슬 합창단'을 새롭게 창단했다. '부처님의 감로수(甘露水)'를 의미하는 단이슬 합창단은 어린이 뿐 아니라 젊은 학부모의 신심도 북돋우고 있다.

7월 17일 관음사 환희정 1층서 진행된 단이슬 합창단 연습 현장은 아이들의 맑은 음성으로 가득 찼다. 집중력이 오래가지 못해 힘들 법도 하건만 아이들은 한 시도 흐트러짐 없이 연습에 임했다. 시종일관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찬불가와 동요를 불렀다.

정필윤 지휘자(신라대 성악 교수)는 불교적 가르침 뿐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까지 고려한 곡들을 선정했다. 또한 "칭찬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뿐 아니라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다"는 교육철학으로 합창 지도에 임하고 있다.

최예원 학생(남성초 · 6)은 "선생님이 정말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신이 난다"며 "특히 '산에서 야호 하듯 발성해라'며 입모양을 짚어주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배우기 매우 편하다"고 말했다.

정서하 학생(오션초 · 3)은 "칭찬을 받으니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긴다"며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웃었다.

합창단은 포교의 일환으로 시작됐지만, 실력도 갖추기 위해 탄탄한 기본기를 닦고 있다. 정 지휘자는 입모양 뿐 아니라 발음 그리고 발성 까지 꼼꼼히 지도한다. 정 지휘자는 "합창에 필요한 정확한 음을 내도록 아이들을 지도하고, 소프라노 · 앨토 등 다양한 파트도 나눠 전문성을 갖추겠다"며 "아이들이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7월 3일 창단… 70여명 참여
자모회 총 33명까지 구성돼
어린이 · 부모 포교 '동시에'
전문 지휘자 지도로 실력까지

7월 3일 창단한 단이슬 합창단은 현재 7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교 1~6학년이 대상이지만 유치부도 참여가 가능하고, 앞으로 졸업생과 연계해 중 · 고등부로 확장할 예정이다. 현재 연습은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2시 30분 관음사 환희정 1층에서 진행된다.


부산 관음사가 7월 3일 단이슬 어린이 합창단을 창립했다. 사진은 7월 17일 관음사 환희정 1층에서 연습하고 있는 아이들 모습.

'단이슬 합창단' 창립 후 나타난 가장 큰 효과는 어린이 불자가 늘어나고, 자모회 회원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합창단 자모회는 총 33명으로 차량 및 공양, 청소까지 모두 도맡아 봉사하고 있다.

김봉진(38) 자모회 부회장은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워해 어머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있다"며 "자모들끼리 친목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절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합창단 창단은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의 전폭적 지지로 가능했다. 지현 스님은 단복을 비롯해 수강료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현 스님은 "30년 전 어린이 법회를 시작했지만 200명에 이르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20명 혹은 10명으로 줄었다"면서 "어린이 합창단 창립 후 많은 아이들이 다시 절을 찾는다.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부처님이란 것을 알려주려면, 먼저 절에 오게 해야 한다"며 포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정수사, 저소득 난치병 환우 돕기 나서

7월 14일 부산교육청에 성금 3000만원 전달

부산 정수사 주지 원광 스님이 지역 저소득 난치병 학생들을 위해 자비행을 실천했다.

원광 스님은 7월 14일 부산교육청 교육감실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 학생 치료비와 생활비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정수사 주지 원광 스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이 참여했다.

원광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픈 학생들을 위해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한편 원광 스님은 2004년에도 난치병 학생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부산시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난치병 학생 돕기 캠페인'이 실시됐으며, 이외에도 홀몸노인 무료급식 · 재해재난 구호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 및 기부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정수사 주지 원광 스님이 7월 14일 저소득 난치병 질환 환자 학생들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아프리카 선생님들, 대구 능인중고 방문

지구촌공생회 케냐 지부장 탄하 스님 등

지구촌공생회 케냐 지부장 탄하 스님과 아프리카 케냐 현지 교육 지도자 4명이 7월 14일 불교종립학교 능인중 · 고등학교(이사장 자현)에 방문했다. 탄하 스님 등은 학교 시설을 견학하고 교육활동 안내, 영어수업 참관, 급식 참관 등에 임했다. 또한 뇨타 레오나르드 은구기 영화초등학교장 등 케냐 교육 지도자들은 학생들에게 특별강연을 선사하기도 했다.

조상승 능인고 교장은 "케냐 선생님들의 이번 방문으로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다른 국가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구촌공생회 케냐 지부장 탄하 스님과 아프리카 케냐 현지 교육 지도자 4명이 7월 14일 불교종립학교 능인중 · 고등학교에 방문했다.

한편 능인중 · 고 학생들은 직접 모금한 성금 130여만 원과 헌옷, 신발 등을 케냐 지부장 탄하 스님에게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영어로 배우는 '부처님 본생경'

(사)한국테라와다불교, 제10회 청소년 명상 캠프

(사)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아신사사나)는 부처님 본생경을 주제로 한 영어캠프 '제10회 청소년 명상 캠프'를 개최한다. 총 2차에 걸쳐 8월 3~7일과 8~12일 경주 내남면 박달로 마하보디 선원서 진행된다.

지도 법사는 악가삿도 스님이 나선다. 악가삿도 스님은 "이번 캠프를 통해 '3가지만 알면 되는 쉬운 독해방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계획"이라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별 토론 및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테라와다불교 측은 "부처님 본생경은 선한 마음과 깨끗한 언어, 청정하고 지혜로운 행동은 장려한다. 반면 악한 마음, 불순한 언어 사용, 어리석은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영어 뿐 아니라 본생경 주제 중 '올바른 언어 사용'이란 세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중 ·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선착순 20명이다. 회비는 15만원. (054)746-9750

하성미 기자

삼광사, 어린이 템플스테이

7월 28~29일 미니올림픽 등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7월 28~29일 '어린이 하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초등학생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템플스테이서는 물총놀이 · 제기차기 · 징검다리 · 방석 쌓기 등 미니올림픽을 비롯해 촛불발원,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삼광사 측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절에 대한 친숙함을 갖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에게 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불자라는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명예경찰 소년단은 7월 25일 삼광사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명예경찰소년단은 연꽃 만들기, 탑돌이, 명상 등 참여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051)808-7111

박아름 기자

우리문화 연구원, 2016 전주 연꽃문화제 개최

7월 16~17일 전주 덕진공원, 공연 · 체험프로그램 '다채'

전주 덕진공원서 연꽃의 향연이 펼쳐졌다.

(사)우리문화연구원(대표이사 성우, 금산사 주지)은 7월 16~17일 전주 덕진공원서 '2016 전주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덕진공원 호수에 활짝 핀 연꽃을 배경으로 열린 이번 문화제에서는 다양한 문화 공연 및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첫째 날인 16일엔 식전행사로 전통 무용과 훌라춤 공연, 에델바이스 백밴드 공연, 혜광 스님의 색소폰 연주, 사물난타공연 등이 진행됐다. 또한 개회식 후에는 전북불교회관 바라밀 합창단 · 군산 그린비 합창단 · 참좋은 우리절 합창단 ·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의 불교 합창제가 이어졌으며, 가수 편승엽의 축하공연도 마련됐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주 연꽃가요제 예선과 본선이 열렸으며, 연꽃 사진 촬영대회도 함께 개최됐다. 이밖에 행사장 곳곳에서 연꽃 만들기, 수묵화 그리기, 연차 시음, 염주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과 굴렁쇠 굴리기,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이 진행됐다.



(사)우리문화연구원은 7월 16~17일 전주 덕진공원서 '2016 전주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한편 이번 연꽃문화제 기간 동안 남원선원사는 시민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했으며 전주 황방사와 남고사는 전주비빔밥을 제공했다.

전주 연꽃문화제는 금산사를 주축으로 (사)우리문화연구원을 발족하고, 연꽃문화제를 불교문화 알리기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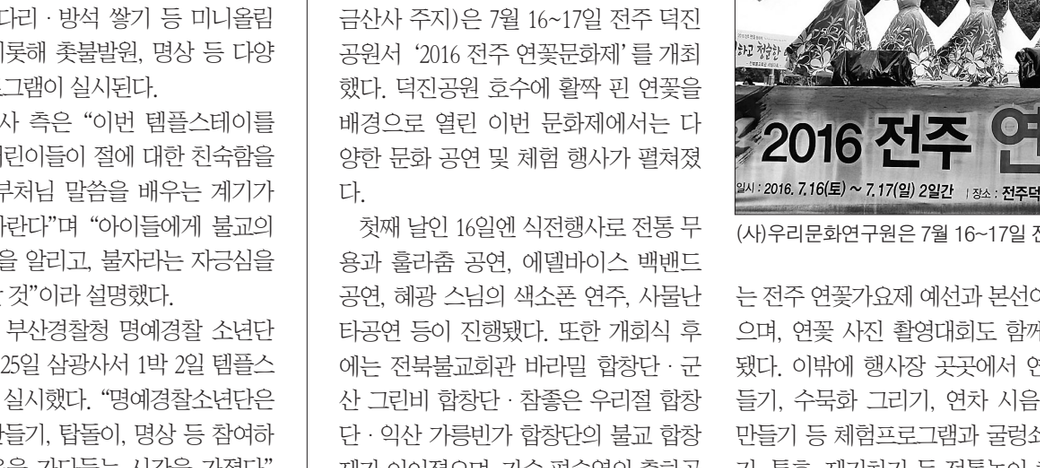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단법인 청암봉사협의회

회장 김영홍

총무 김애준 감사 최명희

이사 김도연 김선자 김애자



사단법인 청암봉사협의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7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8월 1일 (월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